

홀로 눕다

공석진

홀로 누워본 사람은 안다
절경의 꽃구름도
기우는 노을도
드높은 별도
마침내 보이는 것이었음을

뜻밖에 넘어져 본 사람은 안다
녹진 흙내음도
나뭇진 향도
홀씨 날리는 들풀도
미처 몰랐던 소중한 것이었음을

앞만 보고 달리는 사람은 모른다
평화로운 고요도
더딘 시선도
손 내미는 의인도
독와(獨臥)로 인한 축복인 것을

공석진

등단 2007년 《한류문예》

시집 『흐린 날이 난 좋다』外 6권

